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연구

김 인 규[†]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는 나름대로 상담에 대한 생각, 태도, 정서 등을 지니고 오는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상담 진행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된 정도를 상담준비도라고 개념화하여 이를 측정하고 상담 진행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상담준비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정서 등의 상담준비도의 3개 하위 영역에 대한 28개 문항의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대학생 내담자가 일반 대학생보다 상담 준비도가 높으며, 일정한 상담전 교육을 통해 상담준비도가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담준비도 질문지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상담준비도 증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준비도, 상담준비도, 상담에 대한 기대, 질문지 개발

김인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인 규, (100-456)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2-2231-5191 E-mail : ikkim@kyci.or.kr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준비 상태는 그 행동의 수행과정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준비도(readiness)란 해당 과제 또는 과업에 관련된 행동이 갖추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에서는 학생이 어떤 학습과제를 적당한 곤란감 및 도전감을 가지고 공부할 만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기타 여러 측면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준비도를 사용하고 있다. 교사가 교수자료를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학생은 그런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만큼 지적으로 발달해 있어야 한다. 즉 학생이 교육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에 도달한 후에 교육을 해야 한다(박성익, 1997).

상담 준비도(readiness for counseling)는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여 목적하는 상담성공을 얻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어떤 내담자는 다른 내담자에 비해 상담을 통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지녔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Minge, 1965). 이런 특성으로 Garfield(1994)는 내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성, 성격과 검사변인, 문제 심각도, 자아강도, 상담에 대한 기대, 내담자의 매력, 상담자와의 유사성,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들었다. 김계현(2000)은 상담성공을 예언하는 내담자 특성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성 등의 내담자의 인구학적 변인과 문제의 심각도, 자아강도, 내담자의 매력도, 내외통제성 등 내담자의 각종특성, 내담자의 상담몰입정도, 기대, 상담자와의 유사성 등 상담과정상에 나타나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특성 등을 들었다.

이런 특성 중에는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변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지만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자와의 유사성, 내담자의 상담 참여 정도 등

상담자와 내담자의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상담준비도의 구성요소로 Minge(1965)는 자신의 현재 상황 및 상태에 대한 불편한 감정상태, 현재 행동 또는 자신의 지각이 부적응적이라는 인식, 자신의 지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와 능력, 전문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는 신념 등을 들었다. 이들 중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불편한 현재 상태(state of discomfort) 또는 현재 상태의 불만족감(dissatisfaction with his/her situation)이다.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상담관계에서 얼마나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Harper(1959)는 내담자 내에 조직화된 자아의 구조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현실상황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느낄 때 상담준비도가 높다고 보았으며, Rogers(1951)도 내담자의 자기 지각과 자신이 경험한 것이 불일치(incongruence)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현재상태와의 커다란 분열로 이끌어 갈 때 상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상담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eilbrun(1965)은 상담준비도를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인 불만족감 또는 불편함의 결과로 상담에서의 의존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잘 견디어 내는 경향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존의 상담준비도 개념은 내담자의 부정적 자기인식과 심리적 고통 정도를 상담준비도의 구성요소로 삼아 내담자가 상담에 오는 상태까지의 준비도는 다루지만 그 이후 상담의 진행과 성과와 관련된 준비도는 간과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측면을 포함한다.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고통의 심화는 내담자로 하

여급 상담을 신청하게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것이 더 증가한다고 할 때 상담진행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더 높아질수록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를 준비도의 중심개념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담연구에서 상담 준비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켜서 최대의 성과를 얻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켜서 상담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최대의 성과를 성취하게 돕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입장에서 본 상담 준비도 개념은 그것을 향상시켜서 상담과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을 그 중요 구성요소로 삼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담준비도를 이렇게 내담자의 문제의식, 부정적 자기평가 등 상담의 필요성 측면에서 제기한 입장과 달리 Howard, Nance와 Myers(1987)는 내담자의 상담준비도를 동기, 능력, 자기확신 등 상담수행능력의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즉 준비도가 높은 내담자는 활발하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행동 목록을 갖고 있으며 성숙하고 지속적인 관심사를 지니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넓게 보는 관점을 지닌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입장에서 관계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자기 통제와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어 상담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상담에 적극 참여하여 상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 Heilbrun과 Sullivan(1962)도 상담에 준비된 사람은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Howard 등(1987)의 상담준비도 개념은 상담 동기, 능력, 자기 확신 등을 구성 요소로 삼아 상담수행능력을 그 내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켜

서 상담에 더 잘 참여하고 높은 상담 성과를 얻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준비도를 향상시켜 학생이 효과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교육학적 입장과 일치하며(서울대 교육연구소, 1994), 상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 전에 내담자에게 준비 및 교육시켜야 할 내용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상담 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는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Levy(1999)는 상담에 참여하려는 준비도의 수준과 대인관계 기능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등의 내담자 상담 전 특성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동맹수준과 관계있음을 밝혔다. 상담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갈등적인 발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내담자는 상담자와 강한 작업동맹을 발달시키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전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상담에 대한 기대수준도 상담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borsky, 1976; Tinsley, 1982; Highlen & Hill, 1984). 상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내담자는 변화에 저항하는 내담자에 비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김계현, 1995; Seligman, 1990), 내담자가 자아개방, 상담에 대한 책임, 상담에 대한 동기 등 상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상담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가질 때 상담과정과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Tinsley, Bowman, & Barich, 1993).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준비정도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상담접근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내담자들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책임을 지려고 하는 고객형 내담자, 문제는 인식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불평형 내담자 문제도 인식하지 못하고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사도 없는 방문형 내담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Fisch, Weakland, & Segal, 1982). 방문자 유형의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면서 상담에 대해 아주 낮고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자신을 상담에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불평자 유형의 내담자는 상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불평하는 대상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이나 상담과정에 대해 기대가 아주 낮거나 부정적인 경우 우선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내담자의 비관적인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Fisch et al., 1982).

내담자들을 자신의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Prochaska와 DiClemente(1986)는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변화에 따라 내담자의 상태를 숙고전 단계(precontemplation stage: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수준), 숙고 단계(contemplation stage: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해결방법을 고려하는 수준), 행동 단계(action stage: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 유지 단계(maintenance stage: 재발을 방지하고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로 구분하였다. Satterfield, Buelow, Lyddon과 Johnson(1995)은 상담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상담의 촉진적 조건에 대한 기대’가 변화 단계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숙고전단계의 내담자는 상담의 촉진적 조건에 대해 아주 낮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며 부모나 교사에 의해 강제로 상담실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단계의 내담자들은 상담의 촉진적 조건, 상담자의 전문성, 돌봄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계의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변화를 촉진시키고 상담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Howard 등(1987)은 내담자의 준비도 정도에 따라 다른 상담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매우 낮은 준비도의 내담자에게는 상담자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로 말해주고(telling) 높은 수준의 지시성과 낮은 수준의 지지를 보여주는 합리적-정서적 접근이나 행동수정 접근이 적합하고, 조금 낮은 수준의 준비도를 지닌 내담자에게는 주로 상담자가 가르치며(teaching) 높은 수준의 지시성과 지지를 보여주는 현실치료나 아들러식 접근이 적합하다. 조금 높은 수준의 내담자에게는 상담자가 주로 이해하며(understanding) 낮은 수준의 지시성과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여주는 내담자 중심 접근이 적합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지닌 내담자에게는 상담자가 주로 관찰하며(observing) 제한된 수준의 지시성과 지지를 보여 주고 내담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정신분석 접근방법이 적합하다.

이러한 상담전 내담자의 상담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내담자가 상담을 원하는가(whether the client seeks in), 상

담과정에서 머물러 있는가(remains in), 상담으로부터 이익(도움)을 얻는가(benefit from)라는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평가되었었다(Cartwright, 1955). 또한 상담준비도를 상담 진행 회기 수로 측정하기도 했는데 상담 준비도가 클수록 전체 회기의 수는 크며, 내담자의 상담효과도 큰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개념은 성공적인 단기 상담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Heilbrun, 1961; Heilbrun & Sullivan, 1962; Katz, Lorr & Rubintein, 1958; Taulbee, 1958).

많은 연구자들이 상담준비도의 측정도구로 상담준비도 척도(CRS; Counseling readiness scale) (Heilbrun & Sullivan, 1962)를 사용하였다(Heilbrun, 1965; Heilbrun & Sullivan, 1962; Tinsley, Honson, Holt & Tinsley, 1990). CRS는 형용사 체크 리스트(Adjective Check List)의 24개 하위영역 중 하나로서 6회 이전에 조기종결하는 내담자와 6회 이후까지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를 구분하는 형용사들을 분류하여 구성하였다(Heilbrun, 1982). 남성용은 52개, 여성용은 37개의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남자는 대인관계 행동에서 문제가 있어 부끄러움, 자신없음, 자기부인 등의 특성을 보이며 버려진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길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원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별로 주저함이 없고 진취적이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RS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여성은 지적이고 내향적이며 능력있으며 매우 개인적이며, 자신의 상태에 불만족스러우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서 양육적인 정서를 잘 일으키지 못하여 실제적으로 다른사람들이 부인

또는 거부의 반응을 하게 한다.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은 부드럽고 수수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그녀는 상담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으며 상담이 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도 적다. CRS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성용 .70, 여성용 .59이며(Gough & Heilbrun, 1980), 타당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Heilbrun, 1964, 1965, 1974; Heilbrun & Sullivan, 1962).

CRS가 상담 준비도 측정도구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지만 CRS가 측정하는 것은 상담수행능력으로서의 준비도가 아니라 상담에 대한 필요성으로서의 준비도이다. 또한 CRS가 측정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성격 특성으로서 교육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상담준비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담실제에서 상담성과 제고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담수행능력으로서의 상담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상담준비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및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이다. 상담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내담자의 성, 사회·경제적 지위, 상담에 대한 기대, 성격 특성 등이 논의되고(김계현, 2000), 상담구조화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내담자를 상담에 준비시키는 과정은 상담 진행 및 상담자 훈련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김계현, 1995; 이장호, 1995; 송혜경, 1997).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부족하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금명자, 이장호, 1990; 배제현, 1993; 이명아, 1997; 정은선, 1997; 유유정, 1999) 이는 기대라는 내담자의 인지적 상태만을 다루고 있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준

비정도를 다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정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상담준비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상담 실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준비도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준비도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대학 및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도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한다. 둘째,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도를 측정하여 두 집단간에 상담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일정한 상담준비도 증진 교육이 실제 상담준비도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측정 도구

상담수행능력으로서의 상담준비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상담준비도의 하위영역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정서 등 3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개발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상담기대질문지(ECA: 이장호, 금명자, 1991; Tinsely, Workman & Kass, 1980), 상담전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문헌(김계현, 2000; Garfield, 1994) 등을 참조하였다. 상담기대 질문지의 56개 문항 중 상담준비도의 하위영역별로 적절한 문항 20개를 선정하였으며 기타 문헌을 참조하여 8개의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상담준비도 측정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문항의 구성 및 문장

표현에 대하여 상담분야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인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자가 구성한 내담자의 상담 준비도의 하위영역은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정서이다. 상담에 대한 태도 영역은 내담자가 상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신의 책임을 지려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상담을 지속하려고 하는가를 의미하며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 상담자에 대한 개방성, 상담과정에 대한 책임성 등으로 구성된다. 상담에 대한 동기는 상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나는 상담자를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만날 것이다', '나는 때때로 상담이 고통스럽거나 불쾌하더라도 상담을 계속할 것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상담자에 대한 개방성은 상담에서 자신을 얼마나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나는 상담자에게 나 자신과 내 문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이다', '나는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상담과정에 대한 책임성은 상담의 진행에 내담자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참여하려고 하는가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나는 상담자를 의지하기 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책임감을 갖을 것이다', '나는 상담시간 외에도 내 고민거리를 계속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상담에 대한 지식 영역은 내담자가 상담의 진행과정, 상담의 성과, 비밀보장 등과 상담자의 역할, 특성 등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기대하는가를 의미하며,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인식, 상담성과 기대, 상담자의 전문성, 수용성, 지시성에 대한 지식과 기대 등을 그 세부영역으로 포함한다.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인식은 상담 진행과정에서 비밀준수가 얼마나 지켜진다고 보는가를 측정하

는 요소로서 ‘내가 상담하는 사실이나 상담한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상담성과 기대는 상담의 성과를 어떻게 기대하는가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상담을 통해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상담을 하고 나면 나는 앞으로 내 스스로 여러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상담자의 상담전문성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과 기대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상담자는 나를 도와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상담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상담자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담자의 무조건적 수용의 자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상담자는 나를 상냥하고 따뜻하게 대해 줄 것이다’, ‘상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담자의 지시성에 대한 인식은 상담자의 적극적인 지시와 충고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상담자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상담자는 자주 나에게 충고를 해 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에 대한 정서 영역은 상담을 신청할 때 내담자가 상담과 상담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의미하며 측정 문항으로는 ‘내가 괜

표 1. 내담자 상담 준비도 질문지 구성

영역	구성요소	문항수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동기	3개
	개방성	3개
	책임성	4개
상담에 대한 지식	비밀보장	1개
	상담성과	3개
	상담자의 전문성	3개
	상담자의 수용성	3개
상담에 대한 정서	상담자의 지시성	3개
	불안, 의심, 거부감	5개

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받으러 온 것 같다’, ‘정말 상담자를 믿고 말해도 될지 의심스럽다’ 등이 제시되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불안, 의심, 초조 등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여 역코딩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개발한 내담자 상담준비도 척도는 상담에 대한 태도 영역 10개 문항, 상담에 대한 지식 영역 13개 문항, 상담에 대한 정서 영역 5개 문항 등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 정말 그렇다(5)의 리커르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

내담자 상담준비도 척도의 9가지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9가지 하위 척도의 내적 합

표 2. 내담자 상담준비도 검사의 하위척도간 상관계수(r)($n=193$)

하위차원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정서
상담에 대한 지식	.403**		
상담에 대한 정서	.447**	.198**	
상담 준비도(전체)	.846**	.775**	.618**

** $p < .01$

치도는 $a=.75\sim.89$ 로 상당히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a=.91$ 의 합치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분신뢰도는 $.82\sim.89$ 로 양호한 편이었다.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검사의 동질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척도간의 상관인 $r=.198\sim.846$ 의 다양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상담에 대한 태도는 상담에 대한 지식과 상담에 대한 정서와도 유의하게 큰 상관을 보여 상담에 대한 태도가 다른 두 영역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 및 절차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도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담준비도 질문지를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에게 실시하여 두 집단의 상담준비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일반 대학생 집단은 서울소재 3개대학, 지방소재 2개대학에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대학생 내담자 집단은 전국 10개 대학의 학생상담소 또는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문화원에 상담을 신청한 대학생 내담자들이다. 일반 대학생 집단은 149명이었고, 대학생 내담자 집단은 28명이었다.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는 수업 전 또는 후에 상담준비도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대학생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는 이들이 상담을 처음 신청할 때 상담준비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일반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변화에 대한 연구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상담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일반 대학생은 서울소재 3개 대학, 지방소재 2개 대학에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로서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는 실험집단은 112명,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은 149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에서 실시한 상담교육은 대학생 내담자들을 위해 개발한 13분 분량의 비디오(김인규, 2003)를 시청하는 것으로서 비디오의 내용은 상담의 의미와 진행과정 소개, 상담에 대한 의심과 불안 해소 등이다.

또한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상담준비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내 1개 대학의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전술한 비디오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후에 상담준비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도 비교

개발한 상담준비도 질문지를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에게 실시하여 두 집단의 상담준비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상담준비도는 표 3과 같다.

두 집단의 상담준비도를 비교해 보면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도 점수는 대부분의 영역과 요인에서 일반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점수보다 높고 표준편차도 작으며 특히 상담준비도 전체, 상담에 대한 정서영역, 상담에 대한 동기와 비밀보장에 대한 지식 요목에서는 대학생 내담자가 일반 대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 즉 대학생 내담자들은

표 3. 대학생 내담자와 일반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비교

		대학생 내담자의 평균(표준편차) (n=28)	일반 대학생의 평균(표준편차) (n=149)	t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동기	3.76(.73)	2.97(.92)	4.28**
	개방성	3.35(.80)	3.55(.75)	-1.31
	책임성	4.08(.49)	4.01(.69)	0.50
	계	3.73(.43)	3.51(.67)	1.64
상담에 대한 지식	비밀보장	4.11(.63)	3.66(1.09)	2.07*
	상담성과	3.85(.58)	3.64(.75)	1.38
	상담자의 전문성	3.80(.58)	3.71(.76)	0.59
	상담자의 수용성	3.65(.43)	3.57(.70)	0.63
	상담자의 지시성	3.57(.50)	3.71(.68)	-1.06
계	3.80(.34)	3.66(.62)	1.13	
상담에 대한 정서	불안, 의심(역코딩)	3.67(.46)	3.32(.70)	2.61*
상 담 준 비 도		3.73(.29)	3.47(.43)	3.08**

* $p < .05$. ** $p < .01$

일반 대학생에 비해 상담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정서적인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변화에 대한 연구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상담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상담준비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담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아무런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상담준비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상담준비도 전체점수와 상담에 대한 태도영역, 상담동기와 내담자의 개방성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담준비도 전체에서 실험집단은 3.61, 통제집단은 3.47의 점수를 보여 유의도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도 실험집단은 3.70, 통제집단은 3.51의 점수를 보여 유의도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상담에 대한 태도 영역의 하위요인인 상담동기 요인에서 실험집단은 3.34, 통제집단은 2.97의 점수를 보여 유의도 .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개방성 요인에서 실험집단은 3.74, 통제집단은 3.55의 점수를 보여 유의도 .05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영상자료를 활용한 상담교육이 일반 대학생들에게 상담에 대한 동기를 불러 일으키고, 상담에서 더 개방적이 되도록 하며 이것은 상담준비도 전체의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를 지니는

표 4. 상담교육을 받은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의 상담준비도 비교

영역	요인	실험집단의 평균(표준편차) (n=112)	통제집단의 평균(표준편차) (n=149)	t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동기	3.34(.75)	2.97(.92)	3.47**
	개방성	3.74(.52)	3.55(.75)	2.26*
	책임성	4.02(.38)	4.01(.69)	0.85
	계	3.70(.43)	3.51(.67)	2.59*
상담에 대한 지식	비밀보장	3.87(.80)	3.66(1.09)	1.65
	상담성과	3.76(.58)	3.64(.75)	1.44
	상담자의 전문성	3.78(.51)	3.70(.76)	0.85
	상담자의 수용성	3.66(.55)	3.57(.70)	1.12
	상담자의 지시성	3.76(.55)	3.71(.68)	0.69
계	3.76(.38)	3.66(.62)	1.62	
상담에 대한 정서	불안, 의심(역코딩)	3.37(.70)	3.32(.70)	0.65
상 담 준 비 도		3.61(.38)	3.47(.43)	2.74**

* $p < .05$. **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상담교육의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상담준비도 측정을 미리 한 후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다시 상담준비도 측정 하여 처치 전 후의 상담준비도 점수를 하위 요인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 대학생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에서도 영상자료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상담준비도 전체와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정서 등 모든 하위영역, 내담자의 상담동기, 책임성,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자의 수용성 등 4개 요인에서 영상자료를 보기 전과

본 후의 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상담준비도 전체지수의 경우 처치 전에는 3.53이었는데 처치 후에는 3.82가 되어 유의도 .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영역의 경우 처치 전에는 3.66이었는데 처치 후에는 3.89가 되어 유의도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상담에 대한 지식의 영역에서는 처치 전 3.58, 처치 후 3.74로 유의도 .05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에 대한 정서의 경우 처치 전 3.37, 처치 후 3.81로 유의도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요인에서는 처치 전 3.19, 처치 후 3.67로 유의도 .01 수준에서,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책임감 요인에서는 처치 전 3.97, 처치 후 4.09로 유의도 .05수

표 5. 일반 대학생 상담교육 전후 상담준비도 비교 (n=24)

영역	요인	처치 전 평균(표준편차)	처치 후 평균(표준편차)	t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동기	3.19(.69)	3.67(.46)	3.37**
	개방성	3.81(.56)	3.92(.56)	1.28
	책임성	3.97(.37)	4.09(.35)	2.15*
	계	3.66(.40)	3.89(.35)	3.91**
상담에 대한 지식	비밀보장	3.71(.81)	3.79(.59)	0.81
	상담성과	3.45(.55)	3.61(.48)	1.52
	상담자의 전문성	3.50(.51)	3.75(.45)	3.09**
	상담자의 수용성	3.66(.60)	3.81(.51)	3.19**
	상담자의 지시성	3.67(.51)	3.75(.55)	0.76
계	3.58(.43)	3.74(.36)	3.27**	
상담에 대한 정서	불안, 의심(역코딩)	3.37(.62)	3.81(.55)	4.37**
상 담 준 비 도		3.53(.41)	3.82(.34)	5.00**

p *<.05. **<.01

준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요인은 처치 전 3.50, 처치 후 3.75로 유의도 .01 수준에서, 상담자의 수용성 요인은 처치 전 3.56, 처치 후 3.80으로 유의도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상담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 변인으로 내담자의 성격특성, 문제유형, 기대, 문제의 심각도 등이 다루어졌지만(김계현, 2002) 본 연구에서 소개한 상담준비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에서 다루어진 상담준비도 개념도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담에 오기까지의 준비도 개념만을 다루었지 상담 진행을 위한 준비도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도움을 받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며 상담자를 신뢰하고 상담성과에 대해 기대를 갖으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상담을 받으려 하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내담자의 상태를 본 연구에서 상담준비도라고 개념화하였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질문지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상담준비도를 비교하였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했을 때 상담준비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담준비도 질문지는 일반대학생과 대학생내담자의 상담준비도 차이를 드러내주며, 상담교육을 받은 후의 상담준비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밝혀내는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상담준비도 개념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 상담성공에 대한 기대,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되며(금명자, 이장호, 1990), 이는 다시 예상(anticipation)과 선호(preference)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선호는 감정적인 요소 및 이상주의적인 요소와 연합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욕구, 가치, 학습, 사회적 영향, 감각적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지적 작용인 결정과정(deciding process)을 거쳐 귀결되는 선택을 의미한다. 반면 예상은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확실성(certainty)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 속으로 그려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유유정, 1999). 이렇게 상담에 대한 기대는 내담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된 개념인 반면 상담준비도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태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다. 즉 상담에 대한 지식의 정확성 정도, 상담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수준, 상담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의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담에 대한 기대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준비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내담자의 특성이다. 김계현(2000)이 제시한 상담성공을 예언하는 내담자 특성 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성 등의 내담자의 인구학적 변인과 문제의 심각도, 자아강도, 내담자의 매력도, 내외통제성 등 내담자의 각종특성들은 상담전이나 상담 과정 중에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들이다. 반면 상담준비도는 상담전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홍보, 상담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담전 내담자 교육 영상자료를 사용했을 때 상담준비도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담의 문제 영역이나 대상별로 다양한 상담전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내담자의 상담준비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상담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담수행능력으로서의 상담준비도 개념 역시 한계와 문제점을 지닐 수 있다. 우선 내담자의 긍정적 특성만을 강조하고 부정적 특성을 배제한 것은 상담준비도의 한 측면을 배제할 위험성이 있다. 내담자의 주관적 불편감은 상담을 시작할 뿐 아니라 상담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중요 요소일 수 있다. 물론 주관적 불편감이 계속 커지는 것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는 과제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이를 상담준비도 개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준비도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대학생 집단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지적 수준이 높고 현실적 스트레스가 적은 등 연구대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상담준비도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생 내담자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의 현실적 문제 수준을 통제하지 않아 두 집단간의 상담준비도 정도가 차이가 두 집단이 경험하는 현실적 문제 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수준의 현실적 문제수준에서의 상담준비도 차이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다룰 수 있도록 연구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상담 준비도 개념과 측정 도구는 상담현장에서 쉽게 사용하여서 내담자의 파악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구상, 실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상담준비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상담준비도의 개념과 그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를 다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준비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상담교육은 영상자료를 활용하여서 상담을 시작하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서면자료나 오디오 자료, 강의, 상담구조화 면접 등을 통해서도 내담자의 상담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담준비도 증진 방법들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명자, 이장호 (1990).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상담과 심리치료, 3(1), 23-43.
 김계현 (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원사.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서울: 학지사.
 김계현 (2002). 교육상담에서의 효과성 연구와 메타분석. 아시아교육연구, 3, 135-149.
 김인규 (2002). 상담전 교육 영상자료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인규, 김계현 (2003).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향상을 위한 영상자료 효과연구. 상담학연구.

4(2), 187-203.
 김혜숙, 공운정, 박한샘 (1996). 청소년상담모형개발연구 II. 청소년대화의광장.
 박성익 (1997).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I). 서울: 교육과학사.
 배제현 (1993). 성격유형, 심리사회적 발달정도와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94).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송혜경 (1997). 개인상담의 구조화 교육에서 비디오 테잎 시범학습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유정 (1999). 초기상담에서 상담자 역할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와 예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아 (1997). 상담의 조기중단과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이장호, 금명자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학생연구, 26, 1-18.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정은선 (1997).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상담기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artwright, D. S. (1955). Success in psychotherapy as a function of certain actuarial variables. *Journal of Psychology*, 19, 357-363.
 Fish, R., Weakland, J., & Segal, L. (1982). *The tactics of change : Doing therapy briefly*. SF: Jossey-Bass.
 Garfield, S. L. (1994). Client variables in psychotherapy. In S. L. Garfield & A. E. Be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2nd ed.). New York: Wiley.
 Gough, H. G., & Heilbrun, A. B. Jr. (1980). *The*

- adjective check list manual*.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 Harper, R. A. (1959).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36 systems*. New Jersey: Prentice Hall.
- Heilbrun, A. B., & Sullivan, D. J. (1962). The prediction of counseling readiness. *Personnel Guidance Journal*, 41, 112-117.
- Heilbrun, A. B. (1961). Client personality patterns, counselor dominance and dur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Rep*, 9, 15-25.
- Heilbrun, A. B. (1964). Further validation of a counseling readines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290-292.
- Heilbrun, A. B. (1965). Counseling readiness: A treatment specific or general fac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87-90.
- Heilbrun, A. B. (1974). Improved detection of the early defecting counseling cli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633-638.
- Heilbrun, A. B. (1982). Cognitive factors in early counseling termination: Social insight and level of defen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9-38.
- Highlen, P. S., & Hill, C. E. (1984).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Howard, Nance, & Myers (1987). *Adaptive counseling and therapy: A systemic approach to selecting effective treatments*. SF: Jossey-Bass.
- Katz, M. M., Lorr, M., & Rubinstein, E. A. (1958). Remainer patient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ubsequent improvement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2, 411-413.
- Levy, E. G. (1999). Therapeutic process in a managed care type setting: The working alliance, pretreatment characteristics and outcom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59(9-B), 5094.
- Luborsky, L. (1976). Helping alliances in psychotherapy: The groundwork for a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its outcome. In J. L. Claghorn (Eds.), *Successful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Minge, M. R. (1965). *Counseling read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Prochaska, J. O., & DiClemente, C. C. (1986). Stages of change in the modification of problem behaviors. In M. Herson, R. M. Eisler & P. M. Miller(Eds.),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pp. 184-214). Sycamore, IL: Sycamore Press.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atterfield, W. A., Buelow, S. A., Lyddon, W. J., & Johnson, J. T. (1995). Client Stages of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76-478.
- Seligman, L. (1990). *Selecting Effective Treatments*. San Fransisco: Jossey-Bass.
- Taulbee, E. S. (1958).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personality variables and continuation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2, 83-89.
- Tinsely, D. J., Honson, J. A., Holt, M. S., & Tinsely, H. E. A. (1990). Level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perceived level of psychological difficulty, counseling readiness, and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examination of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 143-148.
- Tinsley, H. E. A. (1982).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Unpublished test manua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Carbondale.
- Tinsley, H. E. A., Bowman, S. L., & Barich A. W. (1993). Counseling psychologist' perceptions of the occurrence and effects of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mong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6-52.
- Tinsley, H. E. A., Workman, K. R., & Kass, R. A. (1980). Factor analysis of the domain of client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67-570.
- 원 고 접 수 일 : 2004.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4. 4. 18
계 재 결 정 일 : 2004. 5. 8

K C I

College Stud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In-Gyu Ki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rocess and outcome of counseling may be effected by cli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which composed of his thoughts, attitudes and emotions about counseling. Cli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is known as an essential factor for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Some trials to define and measure cli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are reviewed and new measument is developed. The measurement is composed of 3 sub-scales and 28 items. 3 sub-scales are attitudes for counseling, knowledges of counseling, and emotions for counsel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measurment and it's reliavilty and validity are tested. It was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and college student clients. College student cli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is some higher than college students' and some pre-counseling education can make college stud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higher. The validity and usefulness of the measurement are discussed and some ways to increase client's readiness for counseling are proposed.

Key Words : readiness, readiness for counseling,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measurement developing

부 록

상담 준비도 질문지

1. 나는 상담자에게 나 자신과 내 문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이다
2. 나는 상담자를 의지하기 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책임감을 갖을 것이다
3. 나는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4. 나는 처음에 상담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몇 번 이상은 상담을 계속할 것이다
5. 나는 상담자를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만날 것이다
6. 나는 때때로 상담이 고통스럽거나 불쾌하더라도 상담을 계속할 것이다
7. 나는 상담자에게 가능한 한 내 느낌을 표현하고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8. 나는 상담자를 편하게 느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말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 나는 상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말 뜻을 물어볼 것이다
10. 나는 상담시간 외에도 내 고민거리를 계속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1. 내가 상담하는 사실이나 상담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다
12. 상담을 통해 나는 나 자신과 다른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 상담을 하고 나면 나는 앞으로 내 스스로 여러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4. 상담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지게 될 것이다
15. 상담자는 나를 도와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16. 상담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7. 상담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18. 상담자는 나를 상냥하고 따뜻하게 대해 줄 것이다
19. 상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20. 상담자는 내가 단점이 있다고 해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21. 상담자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줄 것이다
22. 상담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말해 줄 것이다
23. 상담자는 자주 나에게 충고를 해 줄 것이다
24. 내가 괜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받으러 온 것 같다
25. 내가 상담받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같아 부끄럽다
26. 상담받는다고 내 문제가 좋아질까 하는 의심이 든다
27. 정말 상담자를 믿고 말해도 될지 의심스럽다
28. 상담실이 정신과나 고등학교 학생부실 같은 느낌이 들어 오기가 꺼려진다.